



#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

#경기도 군포시 #임대료 지원

##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 ‘버드나무에부는바람’처럼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이라는 이름은 케네스 그레이엄의 오래된 동화책 『버드나무에부는바람』(케네스 그레이엄 지은이, 어니스트 하워드 웨퍼드 그림 | 시공주니어 | 2003)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주는 서정적인 이미지도 좋았지만, 이 책은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들려주는 모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좋은 질문을 많이 던져주는 인문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도서관에 걸맞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여 이처럼 이름을 지었습니다.

## 인문학이 희망을 주기를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은 인문학 도서관을 표방하면서 세운 도서관입니다. 지역의 청소년, 주민들이 인문학으로 희망을 얻길 바랍니다. 그에 걸맞은 멋진 이름 덕분인지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은 인문학 도서관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작은도서관 버드나무 에부는바람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단 몇 개월이라도 월세 걱정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월 121만원의 월세는 작은도서관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지요. 그간 월세가 4개월이나 밀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때마침 만난 긴급지원119사업덕분에 부담을 많이 덜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덕분에 인문학교실, 동아리사업, 그리고 평생학습마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당당하게 해냈을 뿐 아니라 밀렸던 월세를 조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수확이었습니다. 월세가 해결되는 동안에는 인건비를 해결하는 것도 한결 수월했고, 도서관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세 부담이 줄고, 운영이 안정되면서 좋은 변화가 많습니다. 도서관 활동에 보다 집중하게 되어 도서관과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지요.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활동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며 소통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들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서 이용자들은 지역 내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통합 반납 시스템까지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들도 학습 내용이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간에 일어난 획기적인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인문학아카데미에 참여하던 시민들과 함께 종강 파티를 가지다가 그 자리에서 인문학 동아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소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주체인 갈릴리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간식, 도서 선물 등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서양미술사' 강의를 진행해주신 이규철 교수님께서도 그동안의 정성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월로우인문학아카데미 가을 학기를 마치면서 종강파티를 한창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에 덧붙여 책을 같이 읽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단체 대화 채팅방을 만들기로 하고 1월부터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리



##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 부는바람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게 되었던 거지요. 흐려졌던 날씨가 다시 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인문학 도서관을 표방하는 사람으로서 올해 가장 기뻐고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은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문학 동아리가 만들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월세 지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변화이니 분명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은 바야흐로 인문학 도서관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중입니다.

**첫째, 강독 모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규철 교수님(서양사)과 함께 시작하는 강독 모임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고 싶다고 해 첫 번째 책으로 ‘사피엔스’를 읽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룰도, 정해진 형식도 없이 시작되기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둘째, 그림책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군포시에서 2년 뒤에 세워질 그림책 박물관의 개관에 발맞추어 그림책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봄부터 그림책 읽기, 그림책 이해하기, 그림책 직접 만들고 출판하기까지 함께 하기 위해 그림책 다락 시민 모임과 함께 작전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셋째, 2018년도에도 재지정을 받게 된 평생학습마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샘터평생학습마을로 도비 지원이 더 줄어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대로 된 월급 한번 받아보지 못하면서도 직원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당신, 좋은 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저곳 푹푹 클릭하며 찾아다니는 당신, 마을에 필요한 일을 찾고 그 일을 위해 밤새워 제안서를 써대는 당신, 마을 축제 준비하랴, 책 축제 참여하랴,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내어 마을에 녹아드는 당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작은도서관 활동가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운동가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